

자이데나 시판 “발기부전 4파전”

동아제약, 12월22일부터 처방전 구매 ... 외국산보다 40% 저렴해

동아제약이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Zydena)가 12월22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동아제약은 12월22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자이데나를 구입할 수 있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

자이데나는 국내에서 개발한 10번째 신약으로 11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당초 12월1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식약청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절차를 거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자이데나는 100mg와 200mg 2가지 용량이 있으며 우선 100mg부터 판매된다.

판매가격은 비보험 전문 의약품이어서 약국에 따라 다르지만 비아그라 등 외국산 발기부전치료제에 비해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발기부전치료제는 1회 분량 기준으로 1만3000~1만60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자이데나의 출시로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2/23>